

# 5선발·테이블세터 ‘속제’ KIA, 개막 전 퍼즐 맞추까

### 로테이션 마지막 자리 김태형·황동하 2파전 윤도현·오선우·김호령 등 상위 타선 고심도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다. 선발 로테이션 마지막 자리와 테이블세터진 구성이 여전히 고민거리다.

마운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1~4선발은 제임스 네일, 아담 윌러, 이위리, 양현종으로 이미 구성을 마쳤다. 그러나 5선발 자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후보는 김태형과 황동하이다. 지난 시즌 125.1이닝을 소화했던 김도현은 팔꿈치 부상으로 개막 합류가 어렵고, 운영 철 역시 지난 시즌 막판 토미존 수술을 받아 올 시즌 등판이 불가능하다.

스프링캠프부터 시작된 김태형과 황동하의 경쟁은 시범경기까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2년차 신예 김태형은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 기간 두 번의 등판에서 2이닝 3실점(1자책), 2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에서는 2경기 5이닝 10피안타 2사사구 7탈삼진 평균자책점 12.60의 성적을 기록 중이다.

그는 지난 13일 SSG 랜더스와의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3이닝 1실점으로 패투했다.

이날 비록 패전수투가 됐지만, 구위 자체는 좋았다. 문제는 다음 등판이었

다. 20일 한화전에서 2이닝 6피안타 2사사구 4탈삼진 6실점(6자책)으로 부진했다.

반면 황동하는 시범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는 두 번의 경기에서 2이닝 3실점(2자책), 3이닝 무실점을 했다.

시범경기에서는 2경기 동안 9이닝 7피안타 4사사구 2탈삼진 평균자책점 4.00의 성적표를 받았다.

16일 NC다이노스전에서는 4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다소 부진했지만, 22일 두산베어스전에서는 5이닝 1피안타 4볼넷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의 불안감을 완전히 지우는 투구였다.

물론 시범경기 성적만으로 5선발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김태형이 5선발 자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투종 선발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누가 5선발이 됐든 KIA 입장에서 남은 선수가 롱런할 역할을 소화해야 한다.

그간의 경험치로 봤을 때 해당 포지션을 겪어봤던 황동하가 더 믿음직하다. 다만 결정된 건 없다. 남은 일정에서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선 또한 속제가 남았다. 기존 리드오프였던 박찬호와 중심타자 최형우가 이



김태형



황동하



윤도현



김호령

적하면서 타선 재편이 필요한 상황. 중심타선에서는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 등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테이블세터다. 후보군은 있지만, 딱 들어맞는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

당초 리드오프 후보로는 아시아쿼터 제리드 데일이 뽑혔다. 그러나 시범 경기에서 9경기 26타수 3안타 타율 0.115로 부진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번 자리를 포함해 2번까지는 윤도현과 김호령, 오선우 등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윤도현은 현재까지 10경기 34타수 7안타 3홈런 7타점 타율 0.206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타율로만 보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파괴력만큼은 확실하다. 예초에 ‘김도영급’ 타격 재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선수다. 실제 지난 21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연타석 홈런까지 터트리기도 했다.

김호령 역시 물오른 타격감을 선보이

는 중이다. 그는 10경기 28타수 11안타 3타점 타율 0.393으로 연일 맹타를 휘두르고 있다. 중견수 수비에서는 이미 리그 최상급에 위치해 있다. 그간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타격을 완전히 정립한 모양새다. 주력 또한 훌륭하다.

오선우의 경우 10경기에서 25타수 7안타 2타점 타율 0.280의 성적을 작성했다. 그는 올 시즌 1루와 우익수 수비를 책임져야 하는 선수다. 수비에서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 있다. 다만 타격에서는 어느 정도 증명했다. 지난해 커리어하이로 작성하며 시즌 중반 팀의 반등을 이끌기도 했다.

KIA는 24일까지 시범경기를 치른 뒤 28일 인천에서 SSG 랜더스와 KBO리그 개막전을 갖는다.

마지막 퍼즐을 찾고 있는 KIA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가 시즌 초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청 손현호·안시성, 전국춘계역도대회 ‘2관왕’

### 남일부 75kg·여일부 61kg급 각각 용상·합체 ‘1위 달성’

광주시청 역도팀 손현호와 안시성이 ‘전국춘계남녀역도경기대회’에서 나란히 2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최근 충남 서천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부 75kg급에서 인상 2위(150kg), 용상 1위(187kg), 합체 1위(337kg)를 기록하며 합계 333kg(인상 153kg·용상 180kg)의 박주현(고양시청)을 제치고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손현호는 인상 1차 시기에서 150kg을 뽑아 올린 뒤 2·3차 시기에서 154kg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이에 인상 153kg을 들어 올린 박주현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자신의 주종목인 용상에서 괴력을 뽐냈다. 그는 1차 시기에서 187kg에 실패한 뒤 2차 시기 같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3차 시기에서는 한국 신기록인 199kg에 도전해 실패했으나, 180kg을 기록한 박주현을 크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손현호는 인상 1차 시기에서 150kg을 뽑아 올린 뒤 2·3차 시기에서 154kg에 도전했으나 아쉽게 실패했다. 이에 인상 153kg을 들어 올린 박주현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이로써 용상과 합체에서 1위를 차지한 손현호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손현호는 한국 남자 역도를 이끌 차세대 스타다. 그는 2025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용상 3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인상 3위·용상 1위·합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문곡서상헌배 역도경기대회에서는 인상·용상·합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



안시성은 인상 1차 시기에서 90kg을 들

어 올렸다. 이어 2차 시기 93kg에 실패했으나, 3차 시기에서는 성공했다. 이 종목 1위는 94kg을 기록한 한지인(부산광역시체육회)이 차지했다.

이후 용상에서 안시성은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그는 1차 시기에서 115kg을 번쩍 들어 올렸다.

2차 시기(119kg)와 3차 시기(120kg)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110kg 기록한 박민경(경북개발공사)을 5kg 차이로 제쳤다.

그 결과 합계 208kg 작성해 1위를 차지한 안시성은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구 광주시청 역도팀 감독은 “국제대회가 8등급 체제로 변경되면서 손현호와 안시성이 기존 81kg·64kg에서 체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체급 변경 후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회였는데도 호성적을 올리게 돼 기쁘다”면서 “두 선수 모두 아시아계급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과만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26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계급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어 올렸다. 이어 2차 시기 93kg에 실패했으나, 3차 시기에서는 성공했다. 이 종목 1위는 94kg을 기록한 한지인(부산광역시체육회)이 차지했다.

이후 용상에서 안시성은 압도적인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그는 1차 시기에서 115kg을 번쩍 들어 올렸다.

2차 시기(119kg)와 3차 시기(120kg)에서는 고배를 마셨지만, 110kg 기록한 박민경(경북개발공사)을 5kg 차이로 제쳤다.

그 결과 합계 208kg 작성해 1위를 차지한 안시성은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고광구 광주시청 역도팀 감독은 “국제대회가 8등급 체제로 변경되면서 손현호와 안시성이 기존 81kg·64kg에서 체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체급 변경 후 올해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회였는데도 호성적을 올리게 돼 기쁘다”면서 “두 선수 모두 아시아계급 국가대표 선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은 기간 철저한 준비로 좋은 결과만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026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아계급 대표 선발전을 겸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스쿼시부가 ‘제2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동일미래과학고

##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전국스쿼시선수권 ‘우승’ 여고부 단체전 결승서 김천한일여고 2-1 제압

광주 동일미래과학고 스쿼시부가 ‘제22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김천한일여고를 2-1로 제압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에서는 문하람이 안수빈을 2-0으로 제압했으나, 김수연이 김하늘에게 0-2로 패배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에이스’ 박솔민이 강현지를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따돌리며 2-0 완승을 기록, 동일미래과학고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박솔민은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여고부 개인전 32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박솔민은 16강에서 정단아(경남스쿼시연맹)를 3-0, 8강 이재인(안양고)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다.

준결승에서도 이수현(인천스쿼시연맹)을 3-0으로 누른 박솔민은 결승에서 이혜인(나주스포츠클럽)에게 1-3으로 석패, 은메달에 만족했다.

문하람 역시 개인전 동메달을 따냈다. 문하람은 32강에서 남유비(외통고) 3-0, 16강 정현아(경남스쿼시연맹) 3-0, 8강에서 박지은(오남고)을 3-0을 차례로 누르고 4강 진출에 성공했다.

4강에서는 이혜인에게 1-3으로 패배하면서 3위에 머물렀다.

이로써 동일미래과학고는 이번 대회를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마감했다.

남자일부에서는 고영조(광주시체육회)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고영조는 64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뒤 32강에서 김재훈(닉스스쿼시)을 3-0, 16강에서 같은 식구 우정욱을 3-0, 8강에서 유승용(전북스쿼시연맹)을 3-1, 4강에서 강우석(울산체육회)을 3-1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는 이민우(충북체육회)에게 2-3으로 패배하면서 2위를 기록했다.

오민재 동일미래과학고 코치는 “선수들이 첫 대회임에도 단체전과 개인전 모두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더 좋은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전남도체육회, 체육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8개소 선정·압해서초 등서 운영

전남도체육회가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선다.

2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2026년 움직이는 체육관 스포츠버스’ 공모사업에서 전국 32개소 중 8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 전남은 강원(10개소)에 이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이로써 소외계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8개 학교는 신안 압해서초, 완도 약산중, 화산 청풍초, 완도 노화초, 신안 자은중, 해남 산이서초, 고흥 대서중, 무안 청계초이다.

스포츠버스 사업은 버스 체험 행사와 작은 운동회 개최 지원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스포츠버스 체험은 몽골텐트, 발진기, 음향기기, 각종 이벤트 물품 등을 지



원하며 스포츠버스 체험, 외부이벤트 체험 등 2~3시간 체험 활동으로 이뤄진다.

또 작은 운동회는 학교 운동회와 병행 개최한다. 단체·개인에게 운동회 제반 물품을 제공하고 인바디 등 체력측정과 참

가자 대상 소정의 기념품 등도 지원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대상 학교는 스포츠버스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스포츠버스 사업은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을 넘어 지역 체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